

□ 협회 동정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이임식 참석

본회 조남조 회장은 지난 8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박용호 초대 본부장의 이임식에 참석하여 3년의 재임기간 동안 업적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한편 박용호 본부장은 3년의 재임기간 동안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외 수산물 안전성 확보 △대미 삼계탕 수출 △토마토·배·사과 등 농축산물 수출 확대 △동물용의약품 수출 1억7천만불 달성 △OIE(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보유부문 OECD 10위권 진입 등의 성과를 이뤘다.

박 본부장은 이임 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으로 돌아가 후학 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축산물 바로 알리기 연구회’ 발족식 참석

조 회장은 지난 7월 18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강당에서 개최된 ‘축산물 바로 알리기 연구회(회장 : 서울대 최윤재 교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연구회의 창립을 축하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창립 53주년 기념식 개최

본회는 지난 7월 3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조출한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조 회장은 사료기술연구소 김기범 차장(21년 근무)과 구매본부 이정예 대리(22년 근무)에게 장기근속상 표창과 함께 부상을 각각 수여했다.



▲ 조출하게 치러진 창립 53주년 기념식 모습



▲ 수상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조남조 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김남훈 전무이사(왼쪽에서 네 번째).



▲ 김기범 차장.



▲ 이정예 대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본회는 지난 7월 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상현 사무관과 회원사 실무 책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원사 및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가졌다.



□ 업계 동정

(주)이지팜스

신임 장원철 대표이사 취임

(주)이지팜스 대표이사에 장원철 (주)이지바이오 사료부문 총괄 부회장이 지난 8월 13일 취임했다.

장 대표이사는 현재 한국사료협회 부회장과 원료구매위원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 신임 장원철 대표이사

축산물 바로 알리기 연구회

창립총회 열고 '축산물 바로 알리기'에 적극 나서 대학·생산자단체·연구기관 등 참여

축산 전문가들이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침체된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축산물 바로 알리기 연구회'를 만들었다.

대학·생산자단체·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축산 전문가 10여명은 지난 7월 18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앞으로 ▲축산 분야의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발표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 학술활동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책자 발간 ▲부패하기 쉬운 축산식품에 대한 허위 비방 방지법 제청 준비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잘못된 내용 개정 운동 ▲축산인과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 활동 등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엔 최윤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부회장엔 홍성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류판동 서울대 수의대학 교수·성경일 강원대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운영위원장엔 이홍구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감사엔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오상집 강원대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이날 초대회장에 선출된 최윤재 교수는 “본 연구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축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학계, 관계, 생산자단체, 농·축협, 사료업계, 가공업계, 관련 연구소 및 기타 모든 관련업계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보령 TMR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변경

보령 TMR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난 8월 4일부로 김민선씨에서 이용석씨로 변경됐다.

서부사료(주)

생산 직원 대상 ‘직원 역량강화 교육’ 수료식 개최

고객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서부사료(주)가 지난 7월 30일 ‘생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료식은 생산본부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된 교육으로, 내근 직원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교육 분위기가 뜨거웠다.



‘생산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기업 모토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일류화’ 실현을 위해 회사 측에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중간관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스킬(사료영양 및 품질, 제품분석, 공장경영 등) 습득으로 본인의 비전 및 업무의 성과 창출을 높이고자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여타 교육과는 달리 서부사료 각 분야 내 마스터 직원을 직접 강사로 구성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검증된 직원에 강의 덕분인지 현장 직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강연자 또한 자신의 전공분야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전수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수료식은 결과 과정 보고를 순서로 사명선언문 발표 및 소감, 수료증 수여 및 우수 교육생 시상, 정세진 회장 격려 순으로 이어졌다.

서부사료는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열정을 끌어내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생물자원(주)

에너지 보강 탑드레싱 '부스터' 출시 및 흑서기 강화사료 비타민 보강



두산생물자원(주) 백두사료는 지난 7월달에 흑서기를 대비하여 신제품 '부스터'를 출시했다. '부스터'는 지방함량을 최소화 한 착육우의 에너지 보강을 위한 탑드레싱 사료로서 지방 함량을 최소화 하여야 착육우의 건물섭취량(DMI)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섭취량이 저하되지 않는 드레싱 사료 '부스터'는 면역능력이 증진되어 광물질과 비타민, 우회단백이 강화되면 섭취량이 증진되어 조지방이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만예정 일 15일 전부터 급여하면 분만 후 대사성 질병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연산성 및 번식성적 향상에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도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우리나라가 북태평양고기압이나 중위도고압대에 완전히 뒤덮였을 때, 장마기간에도 폭염이 이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는 올해 장마가 마른장마라는 기상청 예보가 이어진 가운데 흑서기를 대비하여 강화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여 비타민 등 흑서기 강화사료와 함께 축산농가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이란 판단 하에 실시된 것이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정읍공장, 세계적으로 우수한 4대 공장으로 선정

오는 2015년에 창립 150주년을 맞이하는 다국적 기업 카길은 고객 중심, 혁신, 인재 관리, 협력, 책임과 같은 사업 원칙을 가지고 1956년부터 한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이 확대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사업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카길은 엄격한 기준으로 공장을 평가하고 우수한 공장을 선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카길 베스트 플랜트 어워드'는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어 2년에 한번씩 카길의 1,400개 공장 중 가장 우수한 공장을 선정해왔다.



▲ 정읍공장 전경



▲ 정읍공장 전 임직원

2014년 ‘카길 베스트 플랜트 어워드’에는 한국의 정읍 공장을 포함하여 미국, 브라질, 멕시코의 공장들만이 최고의 공장으로 선정 되었다. 이는 카길이 전 세계적으로 보유한 1,400개의 공장 중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 사료공장을 대표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정읍 공장을 비롯한 4개의 공장들은 운영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원동력이자, 고객의 만족을 향상시키면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내부 직원들에게도 노력에 대한 보상이며 동기를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읍 공장 강태우 공장장은 “3년에 걸쳐서 정읍공장 팀과 함께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해왔다. 매일 안전 점검을 통해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을 교정해 왔으며, 2013년도에 19건, 2014년에 23건의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시상은 정읍 공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카길 베스트 플랜트 어워드’는 크게 네 가지 지표에 의해서 우수한 공장을 선정 하는데, 첫째로 ‘직원들’ 지표에서 경영 활동이나 직원 몰입도, 안전의 측면을 평가하고, 둘째로 ‘기술’ 지표에서 공장 시스템과 통제의 정도, 업무 과정에서의 기술 그리고 신뢰도의 측면을 평가하였다. 셋째로 ‘투입 및 산출’ 지표에서 공급자와의 관계, 환경과 에너지, 식품 안전과 같은 측면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시장’ 지표에서 고객 중심과 새로운 제품의 발전, 자본금에 있어서 효율성, 마켓에서 경쟁력과 결과와 같은 측면들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사업 영역의 리더들 및 기업의 고위 경영자들과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다가오는 9월 11일에 최후의 1개 공장이 발표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장을 선정하고 기념할 예정이다. ‘월드 클래스 프로그램’으로 공장 운영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우성사료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및 임직원 특강 실시



▲ 임직원 특강 모습



▲ 박영선 영업총괄본부장이 하반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주)우성사료가 지난 7월 10일 대전에 있는 본사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했다..

“Action 2014, 목표를 향해 창의적으로 행동하라.”는 사업슬로건 아래 사업을 시작한 우성사료는 내부적으로 물량증대에 힘쓰고 고객에게는 수익을 올려주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을 기반으로 대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축산시장의 환경에 맞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축종별 신제품도 내놓았다. 또한, 특수사료를 비롯한 전 축종에 걸쳐 축산선진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우성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영선 전무는 하반기 영업전략 발표에서 “축산물시세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만 다자간 FTA등을 비롯한 많은 외부요인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위기 요소로 늘 상존하고 있는 만큼 항상 신발 끈을 다시 조이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성사료는 느슨해지기 쉬운 혹서기를 맞아 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임직원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품질안정을 위한 하절기 클리닝 캠페인을 6월에서 8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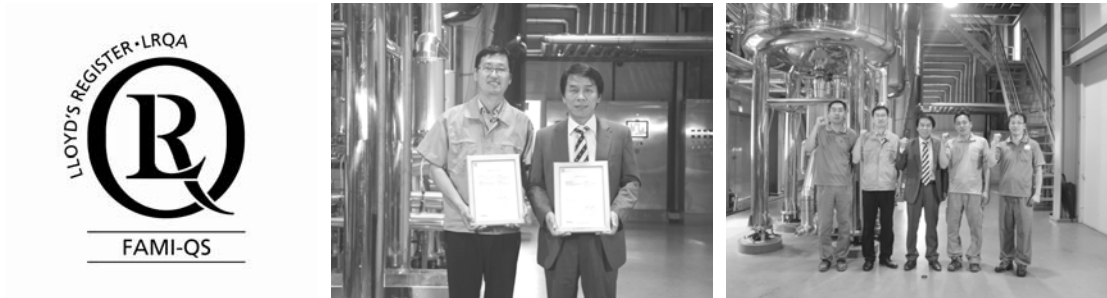
(주)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와 PII, FAMI-QS 인증 획득

(주)이지바이오와 PII(Pathway Intermediates International, Inc.)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사료안전 경영시스템 인증인 FAMI-QS(Feed Additives

and preMixture System)를 지난 7월에 획득하였다.

FAMI-QS는 가축사료 관련 규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료 안전성, 합법성 및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조과정에서의 품질과 사료 안전성 관리, 제조공정 및 제품 규격준수를 보장함으로써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수출시 요구되는 장벽을 해소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사료첨가제와 프리믹스 회사들도 FAMI-QS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이지바이오는 FAMI-QS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전 세계 유수의 글로벌 사료첨가제 및 프리믹스 업체 등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지바이오와 PII는 앞으로도 최상의 제품 품질향상과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ami-qs.org/certifiedcompanies>)

동아원(주)

우수 유산균주 발효법 특허 획득

면역증강 · 생산성 개선 양계사료 개발 탄력

동아원(주) 동아사료(사료 BU장 손병두)가 지난 7월 7일 ‘면역 및 항바이러스 활성이 우수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GB-LP1 유산균 균주 및 이의 발효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동아사료는 우수한 유산균주 발효 방법 특허 기술을 활용한 면역활성 증진용 양계사료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사료는 이번 특허 기술의 활용이 고객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특허는 동아사료 기술연구소 유선종 박사, 김재영 박사와 진바이오텍, 다원케미칼이 지난 2011년부터 2년 10개월간 공동으로 진행한 지식경제부 과제(광역경제권 연계협력개



발사업)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는 면역 및 항바이러스 활성이 우수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GB-LP1 유산균 균주’를 선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발효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산균 발효물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품화해 가금의 면역 활성 및 생산성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선종 박사는 “면역(항바이러스) 활성이 확인된 유산균을 이용한 면역 활성 증진용 가금 사료를 제조하고, 양계농가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 및 생산성 개선효과를 확인했다”며 “농가 수준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대한 면역증진 효과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생산성 저하 등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백신을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에 의한 생산성 저하 및 비용부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면역 활성 증진용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J제일제당(주)

글로벌 사료시장 공략·매출 10조원 달성 다짐

CJ제일제당(주)은 사료사업부문에서 메탄가스 저감 등 인류가 안고 있는 숙제해결과 매출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을 최근 개최된 ‘CJ제일제당 제2회 R&D 세미나’에서 밝혔다.

CJ제일제당 생물자원사업부문은 이번 세미나에서 글로벌 사료시장 공략과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사료’를 적극 개발, 오는 2020년까지 2조원 매출을 올리는 한편 사료 전체 매출 10조원 달성으로 세계 사료기업 순위 10위권에 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장섭 기획관리담당 상무는 “전 세계 사료시장 1위 기업이 태국의 CP그룹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를 감안하면 CJ제일제당도 글로벌 사료시장에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국내 연구소를 중심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있는 해외 R&D 터를 통해 현지시장을 선도하는 첨단 사료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2020년까지 첨단 사료로만 2조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상무는 이어 “2020년까지 전체 사료 매출을 10조원까지 성장시키고 글로벌 매출 비중을 90%까지 올려 해외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생산성 증대, 친환경 요소 등 특수 기능을 보유한 고기능성 ‘첨단 사료’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 사료시장의 약 10억톤의 생산규모 중 첨단 사료의 비중은 1000만톤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4%를 넘어섰고 오는 2020년에는 매출 650조원 중 첨단사료는 9~1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특히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특수 액상 미생물 생산 기술을 적용해 ‘젖소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첨단 사료인 ‘밀크젠’ 개발 및 제조 과정, 특히 취득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립축산과학원과 3년간 공동연구로 사료원료의 메탄성분을 측정하는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사료를 섭취하는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양을 줄여주는 사료첨가제인 ‘CJ-MR0145’ 등 CJ제일제당이 개발한 첨단 사료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병양 생물자원 연구소 박사는 “밀크젠은 젖소의 우유 생산량과 단백질 성분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사료”라며 “올 하반기에 밀크젠처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첨단 사료를 돼지와 닭 등 다양한 축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